



7월 실질 GDP, 3개월 만에 감소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경제연구센터(JCER)는 7월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이 전월대비 1.2% 감소했다고 밝힘.

- 이는 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에코카 보조금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개인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.¹⁾
 - 일본의 7월 수출은 전월대비 3.3%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임.²⁾
 -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회복 모멘텀이 사라진데다 유럽위기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0.1% 감소하였으며,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도 2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반면, 동일본 대지진 복구 수요로 인한 주택 투자와 공공시설 투자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.

■ 한편, 일본 내각부는 지난 8월 경제보고서에서 경기 평가를 10개월 만에 하향조정한다고 밝혀 해당 분기의 국내총생산(GDP)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음.

- 특히 일본 정부는 수출에 대한 평가를 종전의 '회복'에서 '둔화'로 하향 조정했으며, 소비에 대해서는 '점진적으로 개선'에서 '개선될 것으로 기대'로 평가를 낮췄음.
- 또한, 유럽으로의 수출은 이미 크게 위축되었고 미국, 인도,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평가도 하향 조정해 일본의 수출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.

(일본경제연구센터 외, 9/3)

1) 일본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약 3,000억 엔 예산으로 하이브리드카, 경차 등 일정 기준 이상 연비를 충족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당 10만 엔을 보조해주고 있으나, 관련 예산이 바닥나면서 관련 정책이 중단될 예정임.
2) 특히 대 유럽연합(EU)으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.1% 급감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.